朝鮮日報

二十六日夕刊

印刷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能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露中交涉(一)

×

露中間의風雲이 매우急한을傳하게되여 兩國의軍隊가서로衝突하엿다는報道까지도宣布되게되엿섯다『이와노프』長官이逮捕됨으로因하야 더욱形勢는急轉直下的으로變動된바잇서사람으로하여금北滿의問題가매우擴大되여가는바잇슴을 생각케하엿섯다그러나 勞農露西亞側에서는極度로興奮된가온대잇서서도冷靜한態度를取하는것을 이커바리지아니하엿섯다

×

그리하야 北京駐在露國大使『카라한』氏는 二十四日에段祺瑞氏에게 最後通牒의意味로 三個條件을提出하엿다『이와노프』長官及其他逮捕된鐵道官吏의釋放을要求하고軍隊의鐵道輸送干涉即時中止를要求하엿고軍隊輸送費를定하야將來中國側에支拂할鐵道收入中에서此를控除할事를要求하엿다 그에依하야北京政府는『이와노프』長官의釋放을電命한바잇섯다 局外者로보더라도『카라한』大使의要求가 過大하다고는볼수업스니中國政府가 此에應從하는것은 決코勞農露國의壓迫的要求에 屈服하는 意味에서가아니라 그要求가當然함으로그것을受納한것으로보지아니할수업다 이와가티하야 露中間의交涉이 圓滿한結果를보게되려고하는것은 매우欣喜할現象이다

露中交涉(二)

×

露國은決코兵力으로써 中國을威壓하여서는 아니된다 國際聯盟에加入하기를斷然히拒絶한것도 東方民族에對한反逆者라는것을 쌔리는것이아닌가?이點에對하야는 勞農露西亞人民委員長『두이코프』氏도 最近에明言한바이다 露國은 엇더한犧牲을支拂하더라도 中國民의好意를일허버려서는아니될것이다

×

北滿에서 露中間에釁端이생기면 무슨名目으로하던지日本이坐視하지아니할지니그와가티되면 軍事上으로보아서도露國側에有利하다고보기어려울것이니 어느便으로보던지 露國은 穩健한方策을取하는것이得策이라고하지아니치수업다 구리하야 勞農露國은 徐徐히中國의國權回收運動을 助長하는것이 도리허他帝國主義的諸國家를牽制하는 有力한方便이될것이다 그럼으로 露中交涉이圓滿한結果를엇는것이兩國의利益인것을 斷言할수잇는바이다

東鐵問題解決

이長官釋放外二條件으로

(奉天二十五日發) 中東鐵道事件은左의條件으로當面의問題를解決하야本日부터中東線의南行列車를開通하얏더라

一、列車運轉을開始할事
二、護路軍의輸送은露中交涉의條件에依하야露西亞側의同意를經할事
三、以上二項의條件으로『이와노프』長官을釋放할事

解決條件別報

(當局着電) 紛糾中에잇는中東鐵道는事態가漸次重大化하야將次國際問題가되랴하던바二十五日奉天에서露中交涉이잇슨結果次와如히解決된旨로中國側으로부터發表되얏고從하야列車의運轉도同日부터開通될터이라더라

一、長官을直히釋放할事
二、鐵道運行은即時現狀에復할事
三、軍隊輸送은從來의手續에依하되該運賃은中國側配當利益으로부터控除計算할
四、列車의開通은露西亞側領事가責任을負할

이와노프釋放

(奉天廿五日發) 張作霖은在奉天露國領事와交涉한結果『이와노프』長官을張煥相護路司令에命하야即刻釋放케하엿슴으로中東鐵道問題도和平的解決이되얏다더라

列車運轉開始

(長春廿五日發) 『이와노프』長官이釋放되는即時南部線各驛에列車運轉을命하야哈爾賓으로부터廿五日午後二時五十四分發車할터이던바同十時로延長하얏고長春으로부터는九時三十四分發車할模樣이라더라

赤軍國境侵入은

將來의禍根을쉬친다

王正廷對카라한警告

(北京二十五日發) 王正廷氏는本日朝『카라한』氏를訪하고『이와노프』長官即時釋放을張作霖에게電命한旨를回答하는同時에赤露軍國境侵入은將來禍根을쉬친다고警告하엿다더라

滿洲紛糾不干涉

치체린氏對佛大使聲明

(巴里廿五日發) 勞農外交委員『치체린』氏는莫斯科駐箚佛蘭西大使『헬뱃』氏에對하야露西亞는中東鐵道問題로부터發生된滿洲紛糾에就하야干涉할意志가업는旨를聲明하엿다고佛蘭西外務省은發表하엿더라

奉露確執과

白系露人擡頭

赤露의頭痛거리

東中鐵道를中心으로한露國과奉天派의確執은畢竟白熱化하야開戰을免치못할形勢인模樣인데過去數年間赤露의壓迫에依하야屛息하면서도虎視耽耽再起의機를覗하던『세묘노프』以下의白系露人은勿失此機라하야奉天側에策應하랴고벌서부터裏面에서活動을開始하엿다고傳한다在中

白系露人 은其數約二萬을稱하며平素張作霖과의間에暗默히連絡을取하야這般의動亂에對하야도白露人의參加援助가잇섯슴은周知의事實인바今次의東中鐵道問題는白系露人擡頭의絶好한機會이다 一方又赤衛軍은奉天軍에對抗할만한兵數는有한模樣이나這般의動亂에其式 를郭松齡軍에게對하야될수잇는대로援助한關係上小銃과如한것은五千挺을有함에不過하다고外지稱하는模樣인데

日中互惠條約

內交涉終了

(北京二十五日發) 日中關稅互惠契約의內交涉은大畧終了되야近近正式交涉을開始하기로確定하얏더라

赤露側으로는此의白系

露人의策動이頭痛거리가되는模樣이다由來赤露는至今까지宣傳으로中國을脅威하엿섯는데最近에至하야中國側은露國의脅威的宣傳에感치안케되엿슴으로右의事情으로推하야結局은赤露側이不利한地位에陷치안할가觀測되는中이더라

豫算審查期間

延長論議擡頭

(東京電) 政友會는廿五日午後零時半院內에서代議士會를開하고其席上에서篠原和市氏로부터『加藤首相의病으로因하야今後豫算審議에支障이잇서서는不可하다若如斯한境遇에는院議로써豫算審查期間을延期케하자』고陳述하매此에對하야望月總務는『首相의病勢는一日이라도速히快復되기를祝하는바로吾人은首相의病勢를豫想하고豫算審查期日을云謂함과如한事는避할것이다』答하얏더라

家屋稅增徵은

大惡稅라非難

(東京電) 政府의財政整理案中地方稅制整理即府縣戶數割五千六百萬圓府縣營業稅、雜種稅

三省自治制確立

北京政府와는關係斷絶

東三省聯合會의聲明

(奉天二十五日發) 東三省議會、敎育會、商會、農會等聯合會는二十五日正式으로聲明하되北京政府의一切命令을奉치아니하고北京과의關係離脫及東三省聯省自治制를確立하고張作霖을推戴하야東北의治安을維持할事를闡明하얏더라

馮氏에復職勸告

中央動搖를防止코자

(北京二十三日發) 山海關方面에잇는奉天軍의南下、河南에잇는吳佩孚軍의侵入에依하야時局은益益紛糾하랴는形勢임으로政府는此際에中央의動搖를防코자國民軍의實權者인馮玉祥氏에게派遣하기로決定하고二十三日의閣議에서陸軍總長賈德耀氏로復職을勸告하기로決定하얏더라

華勝炭坑買收는

綱紀紊亂에無關

(東京電) 二十三日의本會議에서政友會의板野友造氏로부터質問된滿鐵會社에買收한華勝炭坑...

國際法廷參加案

米國上院에서可決

(華盛頓二十五日發) 亞米利加上院은六八票對二六票로國際法廷參加案을可決하얏더라

米議會最初의事

(華盛頓二十五日發) 亞米利加上院은二十五日世界法廷參加案의討議에就하야討論終結의規則을適用하얏는데此는亞...

非愛國人懲罰法

伊太利兩院通過

(羅馬廿五日發) 伊太利上院은百一票에對한四十票로在外非愛國伊太利人懲罰法案을承認하얏는데 該法案은旣히下院을通過한것으로外國에在한伊太利人으로서 非國民的活動을하는者를罰하되 市民權喪失及財產沒收으로써하는것이라라

獨、軍縮會議參加

國際聯盟에參加

取引所罷業解決

(巴里廿五日發) 巴里取引所의同盟罷業은解決되야當場취引을再開하엿더라

本黨과妥協對策

藏、農兩相의協議

(東京電) 濱口、早速兩相은二十五日議會散會後院內大臣室에서自作農地租免稅、自作農創定等에就하야本黨側代表와議會에對한演說及情勢에鑑하야此의妥協對策에關하야約四十分間에亘하야種種協議한바가잇섯다더라

對中策提議準備

後藤子를陣頭로

◇…公正會가中心이되야

(東京電) 貴族院公正會의有志가中心이되야研究會를始하야貴院各派의賛同을求한後對中政策에關한決議案을提出코자目下此의運動을進行하는中이라 ...

問題의稅制整理案

此가政府對本黨妥協點

兩者主張의折衷이問題

首相病勢

經過危重?

發表拒絶

勞農國歌

演奏取締

犯者는檢擧

臨時首相實現?

內閣首腦部間에論議

新設될放送局

十五年度

四個所로決定

臨時首相은

아직不必要

急設電話申請은

一月末日限停止

亞細亞民族大議

八月一日開催決定

三浦將軍重態

鮮銀職制改革

二月中旬發表?

鮮銀對米政府

賠償請求訴訟

產業組合令

發表=其全文內容(二)

第四章 管理

肺疫牛認知의

補體結合法應用

四道管內

動力使用者大會

人事消息

八面鋒

가뎡평론 녀성의 직업문데 (四)

完山人

◇현금에잇서서 녀성이 직업을가지게된 그동긔가 남성의면횡에대한 엇던보복 수단이나대항책에 잇지안코 다만자긔의 생활만을 구하기에잇섯다 하면우리가 경제뎍으로생활문데를 해결만할수 잇는이상에는 만흔녀성은 그러한자긔의텬분에 맛지아니한 직업에서 해방하게될수 잇슬것입니다 ◇그러나그러한경제뎍으로일반녀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것이 국가의의무나 사회의책임이 아니오 엇더한특정한남성이 특정한녀성의 생활을보장한다는것이 만흔 경우에는친자(親子)의 관계나 혹은부부의관계를 가지게 되는것인즉이러한 관계아래에서는자연히 주종의관계 또는지배ㅣ피지배의 관계가 생기게되는것인가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온뎡(溫情)혹은의리와도덕의지배를바더나갈때에는 그러케 어려운문데가 발생치 안치마는만일일조에 엇더한감정 문데나또는다른관계로충돌이생길때에향상리롭지못한디위에잇는이는경뎨뎍으로자유가업는사람들이겟습니다이러한리유로자연히녀성은불종에갓가운생활을강제로하게되고따라서남성문뎨에만 상당한 모든케도와 디반이생기게됨니다 그리하야오날까지이른것인가함니다 ◇그러고보면 오날에 와서녀성이 직업을구하고 또는엇더한직업을 가지는동시에 우리는직업을가지는 그것이 생활이외에엇더한의미가잇는것을 알어야할것임니다 생활반엇는것의최후의목뎍이라하면우리는 엇더케든지 먹을것만어드면 고만이라는결론에 드러가기쉬운일인즉 우리는 직업을붓드는것이생활이외에도또한큰목뎍이잇는것을말하려합니다

괴상한풍만 『지부아노』의 무서운해부

「라듸오」가발달한오날에도이러한만풍은그대로!

원수의 목을잘러 문압헤매여달고 바람과비에 거처썩고 얼고말러서 앙상하게뼈만남으면 이것을보배라고 허리에차고 단이는생번(生蕃)들의 악한습관을 일즉이우리가 들은일이 잇슴니다 그러나 사람의목을 살뎅이가달린채로 압축(壓縮)식혀 일종의마른

생선처럼

만드러노코이것을보존하며 즐거한다는 가히놀다지 아니치못할만한 풍속은온세계 가온데서 아마이케긔자가 이야기하려는 그곳밧게는다시더업슬줄도 압니다 그것은남아메리가「오리엔트、에가돌、쎌」부근 울울창창한 수목사이에 사는「지부아로」족이니 무서운 야만인의 한례라하겟슴니다 목을잘러 말린것은 현재남아메리가「헤이、푸원데이숀」이라는 박물관에 보관되여잇스니「지부아로」족은 십륙세긔말로부터 십칠세긔초까지 스페인사람의 침략을바든 야만인으로 지금은그세력이

매우미야

하여졋슴니다 그들의생활은 다른야만인 들과가티평시에 추장(酋長)을 정하야 두는법도업고 일종의공산생활(共産生活)을하며 전쟁=할때마다 림시로대장을 뽑는답니다 전쟁을대단히 조화하는인종이요 거처하는곳에는 몃겹으로돌흔담과 몃십길 놉흔탑을쌋코 그우에올라가서 자고나면활쏘기와 돌던지는것으로 세월을보낸다 합니다 그들이행하는 풍속중에 가장리상한 습관은 즉 먼저말한바 원수의목을 비면반드시

섭질을벗

겨말리는것이니 여긔에는 먼커리상한의복을 몸에두루고 오래인 시간을허비하야 여러가지로 복잡한례식을 성대히 거행한다합니다 식이끗나면 원수의목을잘러온 장수는 의긔양양하야 관중의압헤 목을들고나와서 섭질벗기는 기술을 행한다합니다 여러분ㅣ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압축되면얼마나 적어질듯 십습닛가? 보통남자의주먹보다 더크지못하고 두눈이뚜렷하야 마티 달내와갓겟다고생각하면 틀리지 아니할줄압니다 부락을딸어그방법이 얼마큼다르다할수잇스나대개는과학

외과수술(外科手術)을

하듯 칼을들고 머리한가온대를어인후 두갈래로섭질을 벗기기시작하야 얼골전부의 피부를모조리 벗겨내인답니다 그리고그섭질을열대식물(熱帶植物)로만돈그릇우에 올려놋코 그채로뜨거운물속에 집어너허 한참살머가지고 쓰내여말리인다음 씌여진곳이나 터진곳을 재간잇게꿰매여 다시뼈만남은 얼골에씨인담니다 쎕질업는얼골는쓰창이를 집어너허 뢰수와 피와살을끌거내고뜨거운볼에

몃번이나

닥거서거긔장식을한후에야 그쎕질을 씨우는법이니쎕질을씨운다음에도할수잇는대로 귀헌눈에 보기조케꿈이여놋느라고 고심한답니다 이러케하야 완성한물건이 즉보통남자의 주먹만밧게 더크지안타합니다 또한사람의몸 권데를압축하면 얼마나 클는지이것은물론세계에서 실험하여보앗슴 사람이업고다만「지부아로」종족들사이에서 잇다금행하는 풍속중에 나타낫스니 사람의원데몸의 사분지일가량밧게 안된다합니다 그런데「지부아로」종족은사람을 권데로 말리는수술은 별도행하고십허하지아니할뿐아니라근래에는

백인들의

손에정복을당하고「오리엔트、에가돌벤」 삼림속에서 산양하야 즘생을잡어먹는것으로 소일을 하고지내일뿐이랍니다 우에말한박물관에 진렬된것은 즉사람의 몸을권데로압축하고 거긔쓴의원장식을다한것과목을버혀업슬만압축한것이나「지부아로」종족이백인의손에놀려지금다시긔록되고이러한악습을행하지못하게된오날날아마、이두가지진품(珍品)은세계에서또다시차저볼수업스리라하여도망언(妄言)은아닐듯합니다

박물관에

진렬된것중한아는「아메리카」사람이요한아는「스페인장교(將校)」이엿스니「지부아로」종족과전쟁중에사로잡혀갓든사람인듯하답니다

의상 머리털이 엇지하면검어질가요

「문」 열넘곱살먹은 딸이 머리가너무노라코 쌜개서 큰걱정이올시다 그리고 흰머리칼이 잇다금 석기여잇슴니다 엇더케머리를 검게할도리가 업슬가요(진주ㅡ顧開生)

「답」 세상이 전보다 달러저서 붉고노란머리를 더조화하는 사람이 만히생겻슨즉 별로걱정하실필요는 업는줄 생각함니다 노란머리나 흰머리를 검게하는데는최근외국서드러온「베오스、헤나」라는염색제(染色劑)를 사용하면 머리를감어도 빗이얼는버서지지안는다는 말을 실험자로부터 들은일이잇슴니다 무엇보다도 긔자는모발의 영양제와신례를건강케하는텰제(鐵劑)옥도케(沃度劑)를복용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일긔자)

미국오페라계의명성

서양에서는 어느나라이든지 대개매년십일월하순으로 그이듬해 삼월상순까지가「오페라」의씨슨이니 요사히미국뉴욕가극계(歌劇界)에서는「와그넬」을주장삼은「메도로보리단」오페라좌(座)와 불란서 신곡(新曲)을 주장삼은「번핫단」오페라좌를 중심으로 각극단에서 예술가들의쏫나 운생활을엿볼수잇답니다 근래미국가극계의 명성(名星)이라는칭호를듯는사람은「보스톤」에「러두젠」「시카코」에「자ㅣ덴」 뉴욕에「파ㅣ라」양이니 그중에도 가장첫손가락을 꼽이는이는즉 뉴욕의「지에라두덴파ㅣ라」양이랍니다 양은미국가극계에서 인긔집중의 초점이되엿고 그가극계의 조흔위치를 점령한것은 미국극단의큰자랑이랍니다(사진은가극계의녀왕파ㅣ라양)

신랑신부

중국해관에서 십년동안 근부중인 정윤교(鄭潤僑)(四○)씨와 평양엇던녀학교에 재학중인 김신옥(金信玉)(一九)양의 혼례식을이월일일 오후두시 평양남산현례배당에서 오긔선(吳基善) 목사의주례로 거행한다고

傳說 쇠삼의이인 (二)

一、님검의사신

『조흔수가잇다』하고 별안간에 뛰어나오는한늙은이가잇섯슴니다 『무엇이 조흔수…?』하고여러사람은 늙은이껴트로 모여드렷슴니다 그로인은 『이러케하세! 님금이 이곳에오시게되면 반드시 우리동리한가운대로뚤린 큰길로 지나시게될터이니 그길늘 막어바리면구만이아닌가』하엿슴니다 『그것참! 잘생각한일일세그려면 곳엇더케막어보게』하고여러사람은 곳모든것을 준비하엿슴니다 위선케집으로다각기도라가서톱니며 독긔가든것을가지고 숩속으로 드러가서 나무를잔득베어가지고 그길로 나어갓슴니다 여러사람은 그재목을 그동리압흐로 가지고와서 길을단단히막어바리엇슴니다 『이러케만하여두면 아모리용모리 조흔말이라도 뛰어넘지는 못하겟지! 인케는 귀치안흔일은 당하지안켓다』하고 여러사람들은 안심하고각기 집으로 도라가서편히쉬엇슴니다

二、길가의장애물

이 날이 새엇슴니다 이날은님금이 오실날이엇슴니다 그러나「쇠삼」사람들은 『그러케 길을단단히막어노앗스니 아모리 만흔군대라도그것을 쌔트리고 올수는업슬것이다 그리다가 그대로 할수업시도라가겟지!』이러케 생각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님금을마지하려가다고도아니하엿슴니다 물론 사신의 부탁한음식도 만드러두지아니하엿슴니다 님금은 이런줄은 조금도모르고 사신을 보내어미리동긔하여두엇슴즉『쇠삼』백성들은물론마중을 나오리라고만 생각하엿슴니다 그리하야 여러신하를 거나리고 그마을압까지 와본즉웬세음인지 길을 큰재목으로덥고 막어노앗슴니다 『이게 대체웬일이냐』 …하고 님금은대단히 로하야 … 신하는 대단황송하야 『확실히 이마을백성들 … 이 일부러 이러케한것인 … 다』하고대답하엿슴니다

學藝 階級文學을論하야 所謂新傾向派에 與함 (六)

廉尙燮

…謊과人間性點의接觸이 人間에對한 나의立地라할만한일이잇지마는 眞一朴君의小說이活社會의眞面目이라하면 나는人間嫌惡는 고사하고 『人間아自滅하라! 뒤어저라!』 고咀呪하고십다

藝術이란 所謂表現派理論이무어라고하든지간에 그行路로서는『再現』에서부터出發하는것이다 『再現』에對하야 歡喜를늣기는本能이 사람에게 잇는것이요 이것이 사람에게藝術本能이잇는 비롯이다 아모리 醜한얼굴이라도 自己의얼굴을 거울에 비초어보고 그것도不足하야그림으로그려보고하야집버도하고혼자열업시집흔空想에도빠저보며 回想도하야보고 自己反省도하야본다 이것이 勿論藝術的感激 그自體라는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러한『再現』의집붐은藝術的感激에까지 誘導하는本能이라는말이다 이와마찬가지의理論은 舞臺藝術에도드려맛는것이다

劇場이라는것이 朴君의『피의舞臺』만이아닌다음에야『숙영』이가 出演한劇場은『쌀조아』의享樂場이엇다 하드라도 다른劇場에는 勝當『푸로』階級人도勞働에疲勞한心神을쉬이라고한달에 한번이못되면一年에한번이라도 구경할것이다 오늘은月給을타서 주머니속이두둑하니 멋커럼 젊은夫婦가손길을맛잡고왓는지 그러치안흐면비편네의 박아지긁는소리에머리人살이 압하서 화人김에훌쩍집을 뛰어나오거나하야 남들은 親戚끼리 억개를낫첫고 嬉嬉樂樂하야술을마시려다니기도하고 繁華한商店에 드려가서계집子息의겨우사리를작만하기도하나 내身勢로는 이도저도아니됨을생각하니 忿氣는한층더沖天을하는판에 意外로며칠동모안은돈냥이 주머니에 잇는김에『에라! 화人김에 연극구경이나하고 한쌔라도 걱정을이저버리자』하며劇場에를 가는『푸로』도잇슬것이다 그리하야舞臺에나와서 마조안젓는가난방이夫婦의 모양을보니웃치장이며살림사리가 사람만달랏슬뿐이지자긔집을고대로 떼어다가놓은모양이다 무슨연극을하는구하며보고안젓자니 『부엌속에서 … 안해가 갈갈히나간행조치마에손을씨스며 나오는마테『오늘은얼마나 버렷소?』하고 한편에서 무르니까 한편에서는『버는것은 다ㅣ무언가! 삭전을 게다가또쩍그니까 화人김에 그대로 왓지!』하고 … 화人김에 편잔을준것이 … 안해는 이놈의살림못해먹겟다고 앙자를부리기始作하야 內外싸홈이 시작되어ㅣ 어린애는『으아』하고 라팔을불어재치는판에 공교히도 오막사리單三間집의月貫錢을 독촉하라 집主人이 달려들자 … 아츰에 哀乞을하야어더온 쌀한되人갑슬 바드려고뎜벼들어서 … 싸홈을싸왓다가 몰라 헛맹세지거리만하고 도라는갓스나 싸흠통에 쫏겨간빗장이가 날만번ㅣ하면또다시달겨들걱정 버리가떠려첫스니 자고새면 먹을걱정 이러정거러정이 한데덥치어서 싸홈은 한칭더 부채질을하야 가거라 죽어라하고 쥐어박고 거더차고하다가 남편은 휭허나가버린다 뒤에남은안해는분김에도 허긔진남편을 그대로 내어보낸것이 가엽서서 어대를갓누? 어대를갓누? 하며 기다리다가 못하야 아이를들쳐업고 문을 잠그고차지라나 간다』 여긔까지만보아도 아모神通한일은업스나. 火푸리로 구경삼아뛰어들어온『푸로』先生의눈에는 멋十分前에 自己가當하고나온 自己집內幕을 그대로 엿드려가다가演劇으로 … 나하는듯이 深刻한感이 … 거울속에 비치인自己生活의實體를 다보는것갓고 더구나 제집의 심정이 측은하고도 아름답다 『……이러구러하는동안에 남편을 차지러갓든안해는 헛발을치고 도라와서보니 아궁지 엽헤 뼈다가남겨노흔 북쎵이한단에 바람결、뒤인 부엌속이 불바다가되어 … 겁결에 업는아이를 대人돌에떠다가 … 골탕을먹이고 대가리가 터지어서 류혈이랑자하자 어머니는 울며불며 겨오물솜으로지커서 애처럽게우는아기를재여노코 곰곰생각하니 쎄상이 설허못견댈디경이다 압길이 캄캄하고 악이바치어서 눈물조차아니나오다가 문득생각나는것은 부엌천반에 …

小說 청의야차 青衣夜叉

金 …譯

九一

나는 내가집어너흔 편지에우표를 부치면서 그두장의 옥색봉투에 눈을주엇다 그중 한장에는「할푸스텟드 킹쓰거리 구십팔번디 셰예치 크롬후씨」라고 쓰여잇섯다 또한장에 쓴것을 볼때에 나의가슴은 즐거움으로써 뛰엇다 그것은ㅡ

『론돈 랭그함호텔 마벨 안손씨』

라고 하는것이엇다

나는 편지를너코 즉시옵다 와서 회계를하엿다 『에도나는 벌서 노앗섯다 그러나 생각이달라젓는지 그날은 떠나지안엇다 나는그가 하인에게 떠나는것을 중지하엿다고 하는말을 들엇다

나는 즉시려관을나와서 열시오십오분 급행으로 론돈을 향하야 떠낫다

그날 오후다섯시에 나는자동차로「랭그함호텔」로가서 명함을내여주며「안손」색시에게면회를청하엿다 쉬기는 이상한얼굴로 명함과나를 밝아보다가 뎐화실로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하엿다

나는 이층조고만한 방으로 인도되엇다 내가그밖에서 잠시동안 기다리고잇슨즉 신사격으로된 중년된남자가 나의명함을 가지고 들어왓다

『오셧슴닛가』하고 그는매우 공손스럽게 인사를하며 말하엿다『비뎐하께서는 지금 승마(乘馬)하시러 나가셧슴니다 곳 게가들어두어도 조흔넘이면말슴하시지오 커는면하의 비서올시다』

『비뎐하?』나는 우스면서밤하엿다 『무엇이 잘못된넘이아닌가요 나는 마벨 안손씨를 맛나러왓슴니다』

그는 놀나는얼골로 나를보앗다

『그러면 당신께서는「안손」이라하는것이 비뎐하의익명인것을몰으신닛가?』 그는수상한듯이 나를보며 물엇다

『당신께서는 그량반의 정말디위를 몰으신닛가?』 …

멍텅구리 가뎡생활 (94) 이사집

(一) 도적놈을붓내라고 넉마전에가서 (二) 순사복장을사서입고 행순하다가 (三) 난데업는 총소리에놀나 (四) 그동리를급히떠나 이사한다

社告

一、支局의名稱 德源支局
一、支局의位置 咸南德源郡赤田面臥牛里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朴瀅錫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사오니管内에本報愛讀諸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一切를直接此에請求하시압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僉位는如此照諒하시압

總務 朴承亨 / 記者 元基德 / 記者 金源麟

朝鮮日報德源支局白

今般本支局의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支局位置를左記場所로變更하는同時에局員을左와如히任用하얏사오니愛讀僉位는如此照諒하시압

支局의位置 咸南安邊郡邑內 安邊青年會館

總務兼記者 元昌喜 / 記者 黃相哲 / 記者(駐在釋王寺) 李昌煥 / 記者(駐在南山驛) 崔達夏 / 會計 金元燮 / 外交員 朴忠根 / 外交員 卓輪林 / 書記 朴道淑 / 顧問 黃瓚湜 / 顧問 金源夏 / 顧問 文德進 / 顧問 黃日求

朝鮮日報安邊支局白

◇天氣豫報 曇小雪

日銀株大暴騰

增資實現乎

(東京電) 昨年來屢屢히 傳聞되든 日本銀行의 增資問題는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今期議會終了와 共히 卽時實現되리라는 豫想으로 資本家側은 非常한 强氣로 買進하야 休日前인 廿三日에는 十圓高의 內氣配이 엿든바 二十五日朝에 飜然 八百十圓인 二十圓高를 示하고 尙且 繼續暴騰할 氣配를 呈하는 바 此를 昨年冬의 低價當時에 比較하면 實로 六十圓이 騰高이 다 그리고 日本銀行의 增資는 國力의 發展 經濟界의 資力增進 諸事業의 經營上으로 보드라도 當然하다고 본다 더라

岡山組合銀行

預金協定率 利下?

(東京電) 岡山朝笠岡地方의 組合銀行의 預金協定率 三厘引下는 縣下一般銀行을 刺戟하나 信用組合에 預金이 吸收될 念慮하든바 縣當局은 信用組合에게 銀行과 同率로 하라고 勸告하야 近近信用組合의 利下가 될 模樣이 더라

東京市가 朝鮮米의 集散地

春期活躍期待

昨年中에 鮮米協會其他의 手를 經하야 東京市內及同府下에 移出된 朝鮮米는 三十一萬八千石에 達하얏는데 本年에 入하야 東京府近所에 始로 朝鮮米의 多量積出을 見케 된 것은 特히 注目할 만한 바 從來 朝鮮米의 消費地에 不過하든 東京市는 漸次 集散地의 色彩를 帶케 되야 朝鮮米 去來上 一新紀元을 劃할 에 至하얏다 即 本年 一月四日 深川市場 初會부터 十八日外지 十五日間에

東京市 에 朝鮮米移入은 三萬八千叺이나 同期間中에 東京問屋側의 手를 經하야 近縣에 積出된 것은 四萬叺에 達하얏다 從하야 本年의 朝鮮米賣行은 例年보다 훨신 일너서 前年은 三月에 入하야 겨우 深川市場 一日의 賣上高에 一千叺에 不過하얏든 것이 本年은 一月에 入하야 直히 一日平均賣上高 二千五百叺이라는 新記錄을 作한 바 此趨勢로 가면 本年度 朝鮮米 東京移入은

昨年의 倍額 即 五六十萬石에 達하리라 한다 如斯히 朝鮮米 去來上 新紀元을 劃케 된 理由에 就하야 聞한 바에 依하면 日本農家에서는 前年의 高價經驗으로 低價에는 賣치 안코 一方 朝鮮米는 日本米에 比하야 低廉함과 共히 朝鮮米에 對한 理解가 漸次 徹底함을 因함이라 는데 日本米는 當然 夏季外지 持越되겟고 朝鮮米는 春期에 大活躍을 豫想한다 더라

棉花市勢低落도

此以上은 업슬 것

渡邊農務課長談

朝鮮産棉花 昨今의 市勢는 百斤에 六十四五圓의 低價를 唱하야 昨年同期에 比較하면 十五六圓의 下落을 呈하얏는데 此는 棉花生産의 本場인 米國各地가 近年稀有의 豐作이 엿슴을 因하야 世界的으로 棉花의 崩落을 招致한 것이다 그러나 朝鮮棉市勢는 此以上 下落하리라 고는 思키 不能하겟다 如斯히 下落된 時代에는 海外에서 棉花를 買하야 두면

有利 할는지도 모르나 昨年中 九億五千萬圓이라는 巨額의 棉花를 輸入하야 此가 本年은 만히 持越되얏슴으로 如何히 市勢가 低廉트라도 함부로 仕入키는 事實上 不能할 것이다 要컨대 棉花와 如한 人生生活 必要品、世界的 需要品인 것임으로 極端의 低價를 呈치는 안는 것이다 次에 朝鮮의 棉花栽培 第二期 十年計劃이 昨年度부터

實行 에 着手하야 同年度에는 約三萬町步를 增殖하야 豫定의 倍加를 見하는 盛況을 呈하야 再昨年末의 棉花作付段別은 約十五萬町步를 算함에 達하얏고 十五年度도 十四年度와 同樣 約二十二萬圓의 棉付補助費를 計上하야 一萬五千町步를 增殖할 터인데 本年과 가 튼 成績은 得하면 三萬町步의 增加를 示하야 十五年度末에는 約十八萬町步의 棉花地를 實現케 되리라 思한다

本年 과 가티 棉花가 下落하야서는 棉花栽培熱에 惡影響을 及치 안흘가 하는 懸念도 잇스나 本年은 米를 爲始하야 棉花栽培와 同樣인 田地에 耕作할 수 잇는 大豆나 麥類의 市勢도 相當히 下落되얏슴으로 棉花栽培熱을 冷却될 處는 업겟다 十四年度의 朝鮮內 棉花收穫量은 一億六千六百萬斤에 達하얏스나 此가 十年計劃擴張事業이 實現될 때에는 每年 三億萬斤의 生産을 볼 豫定이 다 云云

一月中旬 朝鮮米輸出高

累計百九十萬石

總督府稅務課調査인 本月中旬 朝鮮米의 移出은 二十六萬七千六百八十一石으로 昨十一月 以來의 累計石數는 百八十八萬八千三百六十五石인 바 昨年十一月中旬外지의 累計에 比하야 五萬二千四百七十九石의 增加이오 外米는 産地高와 爲替關係에 加之 栗價低를 入하고 依然 不振을 告하야 中旬 一萬八千五百九十三石 累計 八萬七千二百八十八石으로 昨年同期에 比하야 四萬五千百六十石의

激減 이오 最後에 粟은 産地 輸出餘力의 豐富와 市勢低落으로 中旬에는 特히 激增하야 七萬五千七百四十二石 累計 二十九萬六千三百八十餘石으로 昨年 一月中旬 外지의 累計 三十二萬一千三百九十五石에 比하야 僅히 二萬五千十石의 減少에 不過하얏더라

고무工業

沈滯狀態

朝鮮內 고무靴의 消費額은 年年 增加하야 十三年度에는 輸移入 總額 約五百七十萬圓에 達하야 前年度보다 約二割以上의 激增이오 一方 原料고무의 消費도 年額約六百噸 以上에 達하야 九〇퍼센트 以上은 各地의 工場에서 고무靴의 製造에 使用되는 바 湖南地方의 消費力이 가장 旺盛하야 例年 秋收期를 終하고 舊正月의 接近에 伴하야 賣行이 急增되고 四、五、六月이 第一 閑散하며 靄仲秋前後에 또 賣行이 相當하나 以降 十一月外지 다시 需要減少되는 것이 通常인 바 本年은 昨年보다 原料高의 關係로 價格이 三割이 나 되고 一方 穀類의 低廉으로 實需도 約二割五分이 減少되야 各工場共히 業績極히 不振하야 原料는 昨年보다 三倍 以上 騰貴되얏스나 製品은 日本神戶方面에서 古「고무」를 原料로 한 低廉品이 釜山、元山、木浦、群山 等에 續續移入되야 壓迫되야 昨年中의 二圓前後의 高價原料에 消化는 困難라는 데 昨今의 市勢는 日本人用(十足) 二十三圓、朝鮮人用白靴 十六圓

日本米實收增加

五千九百七十一萬餘石

(東京二十六日發) 農林省發表=大正十四年度 日本米實收高는 五千 九百 七十一萬 二百三十一石으로 第二回 收穫豫想高보다 十八萬四千四百四十石의 增加이엿더라

日銀株主總會終了

合同原案대로 可決

朝鮮商業銀行 第三十九回 定時株主總會는 二十五日 午後三時부터 商銀樓上에서 開催하고 貸借對照表 財産目錄 利益金處分案 等을 一括附議하고 若松監査役으로부터 監査한 結果 考課狀의 正確한 旨를 述하고 質問에 入하야 平壤의 桑田株主로부터 大同銀行 合同에 關聯한 不良貸出 七十萬圓의 處分에 就하야 再三 質問한 배 잇서 이에 對하야 議長은 合倂에 當하야 數字의 相違는 잇고 回收不能의 것이 相當하나 當行에 惡影響이 無한 範圍에서 低資及 鮮銀의 借入으로 處分하얏슴으로 今은 此點에 就하야는 安心을 願한다 答하얏고 其外에 合同後의 成績如何 有價證券의 增加 等에 就하야 二三質問이 잇슨 後 原案(配當七分)을 可決하고 四時 頃 散會하얏더라

同價入、小見用 十二圓 乃至 十圓 程度로 一般으로 昨年에 比하야 實은 劣하고 價格은 三割高를 免치 못 하리라 더라

外米賣却決定

(東京電) 農林省發表=政府는 來二十八日 東京及神戶에서 保存關係上 整理를 要하는 外米 三萬四千石을 賣却하기로 決定하얏더 라

商品市況

▲砂糖 會社側은 採算不引合으로 依然 賣中止이나 市中氣配는 精糖 二十二圓八十錢 程度로 會社發表價格보다 十錢方 下廻이나 阪地分密時勢는 割高인 十三圓四十錢을 唱함으로 目先 漸次引返 豫想

期米

仁川期米 廿六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	—	—
中限	—	—	—
先限	三三、四三	三三、四七	四

前場突高

昨後場 阪止 三十六圓五十錢의 報와 共히 三十二圓四十三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期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六圓四十九錢인 一丁反落을 受하고 三十二圓四十三錢인 昨止同樣으로 場을 始하엿다가 其後 阪地 六十四錢으로 跳返함과 相俟하야 五十八錢外지 反戾하더니 結局 阪地 六十錢의 小低로 止場함을 件하고 五十一錢에 場을 止하엿는데 高低의 差는 十五丁이며 阪仁의 鞘는 四百九丁이더라

他動的을 注目

本月의 相場은 初春의 時期임을 따러 顯著한 波瀾이 無함은 칠하리 當然한 步調라 하겟스며 從하야 大幅의 保合을 支續하고 말 것이 다 大體 本年부터 財界의 好轉과 株價의 反撥로 新春의 人氣가 一時 硬張하엿 섯스나 米의 그 自體가 頭重하기 때 문에 不知不識間에 約九十丁의 反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産地農家의 賣案은 低價에는 絶對不應함으로 舊正이 臨迫함을 不拘하고 地方出廻가 殆히 稀薄하며 同時에 正米의 實勢도 更落할 餘力이 無히 反히 擡頭할 傾向이 有한 바 果然 前途 大勢는 上伸하리라고 斷言을 付할 수 잇 지마는 時期가 時期임을 따러 買進은 早計라 할 수 잇슴으로 買方도 躊躇치 안할 수 업다 그런 대 自動的으로 보아서는 値頃觀의 方針을 取할 수 밧긔 업스나 그러나 他動的의 財界事情이 如何히 進展할는지 그 餘風이 米界에 外지 襲來하겟슴으로 注目을 要하는 中이라고

株價로 본 米界

舊正을 控한 正米市場도 地方의 出廻가 案外 寡少함을 따러 氣分 硬味를 添하며 株式市場도 新春財界의 好轉을 따러 續續 高價를 演出함으로 그 餘影을 受하는 大第인 바 今朝 阪地 六十錢 高로 再燃함도 또한 株價의 突高를 窺한 外닭이라 한다 果然 初市以來의 商勢는 全혀 株界의 騰落을 따러 左右하엿다 고 볼 수 잇 슴으로 單純히 米에만 注目하는 것 보다 外他의 事情도 考察할 必要가 잇슬 것이 다 그런데 不日間 發表될 日本米 實收豫想은 第二回 豫想보다 增收되리라는 樂觀을 呈하며 따 러서 賣氣를 助長할 뿐 하나 此를 對抗하는 環境의 情勢가 容許치 아니 함으로 快活한 反落을 企待키 難하 리라는 商議이 多한 바 果然 實收의 數字가 엇더할는지 三四十萬石의 增收로는 旣히 六千萬石說에 一般 人氣가 馴致되엿슴으로 그다지 刺戟이 업스리라고

米豆餘話

▲地方의 出廻는 稀薄하것마는 貿易筋과 精米筋은 依然히 傍觀할 뿐이 다 果然 淺家는 强氣筋이라 할 수 잇스며 商人은 弱氣筋이라 할 수 잇는 걸 ▲舊正이 接近함을 不拘하고 産地의 賣出이 案外 寥寥하기 때문에 米價는 도리혀 反撥하엿스니 農家의 賣惜은 可知 ▲㊂三等米 三十二圓十錢인 昨日보다 三十錢 突高를 窺하면 不日間 發表될 米實收의 增收說에 도 何等의 影響이 업는 貌樣 ▲米期가 잇슴으로 買進 尙早라 하겟 스나 他動的의 材料가 種種 買氣를 促進함으로 稍漸 擡頭 ▲本月의 相場은 大幅保合으로 볼 수 잇는 바 現下 五十錢臺에는 小掬的 方針으로 買物을 試하는 것도 無妨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三〇、三六	—	三三、四三
二節	—	三三、三五	三三、四九
三節	—	—	三三、四九
四節	—	三三、三五	三三、四六
五節	—	—	三三、五五
六節	—	三三、三九	三三、五六
七節	—	—	三三、五六
八節	—	三三、三九	三三、五五
九節	—	—	三三、五二
十節	—	三三、三四	三三、五一

後場小軟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三、四三
二節	—	—	三三、四九
三節	—	—	三三、四四
四節	—	—	三三、四六
五節	—	—	三三、四一
六節	—	—	三三、四一
七節	—	—	三三、四〇

各限俵合 前場

▲賣方 ○一三〇〇 ㋮一〇〇 ㋕二〇〇 ㋤一〇〇
▲買方 困二〇〇 ㋑四〇〇 ㋒四〇〇 ㋣一三〇〇

仁川正米突高

㊂㊄㊅玄米三等	三二、一〇
同 四等	三二、五〇
無檢査米	二九、七〇
一等精白米	三五、一〇
在米正租	九四、五毛
改良正租	九七、五毛

取組高 出來高 帳入價 合計 累計 二七〇〇〇石 五〇九六八〇〇石

大阪期米

	前場		後場	
當	三四、〇三	止當	三四、〇七	
中	三四、五九	中	三六、〇三	
寄 一節	三六、四九	六節	三六、二三	

大阪氣配 三十六圓五十三錢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三六、四〇 三六、四九	三六、一〇 三六、〇〇
兵庫	三六、三三 三六、一八	三六、三三
下關	三五、六六 三五、六八	—
桑名	三六、三三 三六、四四	三六、四〇

株式

京取市場 廿六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京取	二七九	二七四	—	二七四
鍾新	一四九五	一四九〇	一四八四	一四八〇
大新	一〇七〇〇	一〇七四〇	一〇六五四	一〇五九〇
久原	八六〇〇	八七四〇	—	—
仁取	—	—	—	—
仁新	—	—	—	—
安取	—	—	—	—
殖新	—	—	—	—

前場躍騰

大新 二一〇高 京取 二〇高 鍾新 二〇高 久原 二一〇高

今朝 大阪再次上放에 當地人氣 俄然 硬化하야 大新이 百七圓 同鞘로 一圓七十錢 高付後 八十錢에 外지 漸騰이 다가 十錢에 押하고 大引은 四十錢이 엇스며 鍾新도 百四十九圓五十錢에 高付後 阪止 低와 共히 十錢에 大引되엇스며 京取는 二十七圓九十錢으로 上放 初付이 엇스 나 仕手薄으로 五十錢에 引緩 同事 大引이 엇고 久原은 大阪 爆進에 七十八圓에 付한 後 九圓으로 猛進이 엇다가 大引은 八圓四十錢이 엇더 라

大新人氣一變

下鞘가 上鞘로

逆日步에도 不拘코 下鞘이던 大新은 今朝 大阪引續 昂進에 逆日步 持續 豫想과 相俟하야 强氣側의 新規買를 呼하야 上鞘 買人氣로 一變하야 大阪보다 十錢 上鞘인 百七圓八十錢을 買하고 大引도 三十錢 上鞘이 엇는 바 阪電은 「預金利子引下 接近과 議會無事가 豫想되어 賣過 反動으로 氣直된 貌樣」이라 하얏 더라

京取依然傍觀

仕手薄인 京取는 今朝 大新 躍進에 追伴하야 二十七圓九十錢으로 一 段高를 示하얏스나 (一)大阪高 價持續이 疑問임과 (二)地方側의 高價買躊躇 等으로 頭重인 一面 賣 方인 地場도 下値寂寞으로 氣迷를 가져 賣치 못하는 關係上 自然히 仕 手薄으로 强含閑散保合이 엇더라

目先當然一押

金融은 依然 大援漫이며 議會는 解散이 업슬 듯하고 日銀增資說로 日 銀株는 大暴騰을 演하고 綿絲도 引返步調를 取하엿스며 玉整理도 着着 進行됨을 따러 議會關係念으로 因한 賣過 反動으로 大新이 百二圓臺 에서 一氣로 五六圓方의 反撥을 呈 하엿스니 다시 相場이 爆發된다 드 라도 此邊에서 約二圓方의 一押이 잇슴이 조을 듯하다 보는 便이 잇고 또 議會가 아즉도 解散이 업슬 것으 로만 보기 어려움과 値頃 財界 好轉 을 過買하얏다 볼 수 잇는 點으로 보 아 一氣奔進은 難期이라 보는 者 잇 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二七九〇—二七五〇—二七五〇
▲鍾新 一四九五〇—一四九五〇—一四八五〇—一四九〇
▲大新 一〇七〇〇—一〇七〇〇—一〇六〇〇—一〇六五〇—一〇七〇〇
▲久原 八六〇〇—八七〇〇—八六〇〇—八七四〇

後場諸株步調

▲京取 二七五〇—二七五〇—二七五〇
▲鍾新 一四八五〇—一四八五〇—一四八〇〇
▲大新 一〇六五〇—一〇六〇〇—一〇六五〇—一〇五九〇
▲久原 八六〇〇—八六〇〇—八七〇〇—八六〇〇

後場下押

大新 一五〇低 京取 保價 鍾新 一一〇低 久原 二〇低

後場은 大阪 一齊下押에 當地도 大新이 逆日步 關係上 上鞘이 나마 百六圓五十錢으로 九十錢 低付後 下 澁이 엇스나 結局 大阪에 從하야 漸落되어 五圓六十錢에 外지 下押이 엇다가 大引은 九十錢이 엇스며 鍾新이 百四十八圓五十錢으로 同鞘 에 付한 後 七圓七十錢外지 下하얏 다가 大引은 八圓이 엇고 京取는 初 付不成으로 二十七圓五十錢 三十 錢으로 保合이 다가 大引은 五十錢 이 엇소며 久原은 十八圓에서 二十 錢으로 下押이 엇다

前場賣買關係

▲京取 二五〇(賣)大林 白樂南 (買)新田南 ▲鍾新 一七〇(賣)洪 南(買)新田 有田 ▲大新 一七〇〇 (賣)有田 白井 成濟 新田南(買)白 井 洪 新田 田道 金秀 ▲久原 七〇 (賣)金秀(買)成濟 洪

大新逆九十錢

大新은 買方의 繼續受株申告에 株 不足이 三千三百十枚로 激增을 告 하야 逆日步 九十錢이 엇는 바 取組 內容은 如左하더라

賣方 有田 二百二十 白井 二百八 十 洪 五百二十 金秀 百九十 南 三千 五百九十 外 四店
買方 大林 四百四十 新田 三千百 六十 田道 千二百 外 二店

京取取組

賣方 南 二千二 百六十 洪 三百八十 田中 五百八十 成濟 三百三十 新田 五百九十 田道 千百二十 金秀 二百二十 外 一店

鍾新取組

賣方 洪 二百八 十 魚 二百三十 外 四店 ▲買方 新田 五百 南 二百八十 白樂 二百九十 外 三店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三三四〇	八三〇	二七	一〇
鍾新	二一七〇	四四〇	一四九	八〇
大新	四六八〇不足三三一〇		一〇七逆	九〇

出來高

▲長期 累計 四三八 三四〇〇
▲短期 累計 一五五四二〇〇

大阪短期株式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新	一四九九〇	一四九五〇	一四八五〇	一四八三〇
大新	一〇七〇〇	一〇七〇〇	一〇六三〇	一〇五四〇
久原	八六六〇	八七〇〇	八六六〇	八六三〇
新東	一四〇	一四〇	一四〇〇〇	一三八三〇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一〇七〇〇—一〇七〇〇—一〇六九〇
▲前場鍾新 一四九九〇—一四九七〇—一四九〇〇
▲前場久原 八六六〇—八六五〇—八六九〇
▲後場大新 一〇六三〇—一〇六〇〇—一〇五四〇
▲後場鍾新 一四八五〇—一四八〇〇—一四八三〇
▲後場久原 八六九〇—八六一〇—八六三〇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紡	二七五〇	二七三五〇	二七二七〇	二七二二〇
同新	一五五三〇	一五三五〇	一五四五〇	一五一三〇
大株	一三三九〇	一三三四〇	一三三九〇	一三三二〇
同新	一〇八五〇	一〇八五〇	一〇六五〇	一〇六〇〇
日糖	一〇七八〇	一〇六八〇	一〇六九〇	一〇六〇〇
久原	八七四〇	八七〇〇	八六九〇	八六四〇
同新	二六五〇	二六三〇	二六二〇	二六〇〇
郵船	八四三〇	八四三〇	八三九〇	八三五〇
同新	三二〇〇	—	三二三〇	三二一〇

東京現株

株名			
東株	一四四、一〇	同新	一四〇、〇〇
鮮銀	四六、五〇	同新	二三、一〇
殖銀	五三、〇〇	同新	二三、一〇
滿鐵	一二六、〇〇	同新	四五、〇〇
東拓	四三、七〇	同新	二〇、五〇